

서울시정관련 연구동향

베이비붐 세대 이행기의 노동시장 변화

한국개발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2.12.31

http://www.kdi.re.kr/report/report_class_etc.jsp?pub_no=12911

정년연장을 위한 제도개선, 고령자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
점진적 은퇴제도 도입, 고령자 재취업 활성화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대

- 노동력의 구조 변화
 - 인구고령화 문제는 노동공급의 감소, 인력의 고령화, 기존 노동시장 시스템과의 부정합 등의 문제 상존
 - 향후 중고령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노동력 활용의 중요한 요소
- 정책제언
 - 정년연장을 위한 제도개선
 - 더 많은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
 - 고령자 계속고용의 장애요인인 임금의 연공성 완화
 - 고령자 친화적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개발과 노동시장의 관행 개선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
 - 점진적 은퇴제도 도입
 -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 및 정규직 시간제 활성화
 - 퇴직 전 일정 시점부터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
 - 은퇴 준비교육 의무화 및 유급휴가 부여 등
 - 고령자 재취업 기회의 폭 확대 및 사회공헌형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

제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결정한다! : 美·日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시사점

현대경제연구원 | 한국경제주평 | 2013. 9.9

<http://www.hri.co.kr/storage/newReList.asp>

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및 세제 등을 기업 친화적 방식으로 전환
가격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안정성 확보와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

- 배경
 - 미·일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 추진에 따라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우려
 - 한국의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2010 년 3 위에서 2013 년 5 위로 하락
- 한미일 제조업의 경쟁력 비교
 - 한국의 제조업 투자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, 미·일은 빠르게 회복
 - 한국의 시간당 임금은 미·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단위노동비용 지수는 가장 높음
 -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1 인당 수출액은 가장 높으나 1 인당 부가가치액은 가장 낮음
 - 한국의 사업 환경이 미·일에 비해 열위에 있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작용
- 시사점
 -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 및 세제 등을 기업 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투자를 유도하고, 기업가정신을 제고
 - 가격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안정성 확보 방안과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
 - R&D 투자의 효율성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제고
 - 부품·소재 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
 - 미·일의 보호무역주의 초래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
 - 향후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 시 주요국들의 성공사례 활용

독일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인

현대경제연구원 | VIP 리포트 | 2013.10.10

<http://www.hri.co.kr/storage/newReList.asp>

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은 전통적 우위산업에서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시장다변화, 인적자본의 경쟁력 제고, 기술허브 구축, 최상의 인프라 조성, 제조업의 투자활성화 등에 기인

- 독일 제조업의 현주소
 - 유럽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30%를 차지
 -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높고 고부가가치화가 진전
 - 유럽 전체 상품수출의 1/4 을 차지하며, 히든 챔피언*을 1,300 개 이상 보유
- 시사점
 - 독일 제조업의 꾸준한 경쟁력 유지는
 - 전통적 우위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다변화
 - 인적자본의 경쟁력 제고 및 현장 실습형 직업교육으로 기술인력 양성
 - 지속적인 R&D 투자 확대 및 R&D 의 리스크는 줄이고 성과는 높이는 기술허브 구축
 - 최상의 인프라 구축 및 자본·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제고
 -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
 -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
 - 기업은 시장다변화와 경쟁력 유지를 위한 꾸준한 혁신과 투자
 - 기업이 직업교육의 현장으로 변모
 - 정부는 우위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선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
 - R&D 투자가 상품과 생산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술허브 구축
 - 고령화된 인프라에 대한 꾸준한 투자
 - 국내 회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

* 히든 챔피언은 ① 세계시장 점유율 1~3 위, 또는 각 대륙에서 시장 점유율 1 위 ② 매출액 50 억 달러 이하 ③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의 3 가지 조건으로 선정

최근의 인력양성체제 변화와 지역대학의 역할

산업연구원 | ISSUE PAPER | 2013.7.12

http://www.kiet.re.kr/kiet_web/?sub_num=8&state=view&idx=43632

현장 인턴십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대학들이 현장 인턴사업에 참여할 경우 재정지원 산업단지를 생산시설 중심에서 생산·교육·연구의 산학융합단지로 다변화

- 배경
 - 산업인력양성정책에서 지역대학의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의 중요성은 증가한 반면, 선제적 인력양성정책의 중요성은 감소
 - 지역 일자리창출에서 지역거점대학의 중요성 부각
 - 대학이 교육서비스산업의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이 성장하는 산업으로서의 역할 증대
- 지역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 전략
 - 학연협력 연구개발법인 설립을 통한 창업활성화는 지역소재 연구중심대학이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산업발전에 기여
 - 현장 인턴십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대학들이 현장 인턴사업에 참여할 경우 재정지원
 - 현장 인턴십 강화를 위하여 참여 대학과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
 - 지역 뿌리산업 연계형 프로젝트 기반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
 - 산학융합단지의 산학협력모형 다변화 및 대학 간 연계방안 강구
 - 산학융합단지의 조성은 산업단지를 생산시설 중심에서 생산·교육·연구 융합으로 변화
 - 재교육 훈련 및 평생교육을 위해 지역거점 연구중심대학과 연계

관광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방안

한국문화관광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3.7

http://www.kcti.re.kr/03_1.dmw?method=view&reportId=100&isSearch=false&reportCategory=-1&reportTitle=false&userName=false&reportContent=false&reportSeq=933&pageNum=2&groupNum=1

관광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이해관계자 간 협업체계 구성을 위한 기반 마련

지식서비스형 기업이 생태계를 진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지원 수단 다각화

- 배경
 - 우리나라의 관광시장은 인바운드 시장이 2000 년 532 만명에서 2012 년 1,114 만명 규모로, 아웃바운드 시장은 2000 년 550 만명에서 2012 년 1,373 만명 규모로 성장
- 관광산업 생태계의 구축방향
 - 고부가가치화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형 생태계
 - 경영 효율화를 토대로 한 동반성장형 생태계
 - 외부효과 극대화를 기반으로 한 선순환 생태계
- 정책제언
 - 공공영역에서는 관광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이해관계자 간 협업체계 구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생태계의 공진화 및 상생을 위한 정책수단 발굴
 - 정부는 산업영역에서 등장하고 있는 지식서비스형 업종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기업이 생태계를 진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지원 수단을 다각화
 - 전통적인 사업구조에서 핵심 기능을 담당한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에 대한 지원기조 유지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 신규업종 육성에 필요한 정책방안 모색
 - 미래 관광산업 생태계는 가격경쟁 중심에서 창조경제형으로, 불공정 거래관계에서 동반성장형으로, 수수료 기반형 수익구조에서 수익확대형으로 구조변화가 필요

소비 주도층은 4-50 대 전업주부

현대경제연구원 | 이슈리포트 | 2013.9.6

<http://www.hri.co.kr/storage/newReList.asp>

**미래 유망 소비 트렌드는 자기계발 관련 교육 서비스업, 해외여행·스포츠/레저 관련 서비스업
전세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할 것에 대비하는 정책 필요**

- 소비구조
 - 연령대별 소비지출은 40 대(293.9 만원)와 50 대(287.8 만원)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
 - 20 대에서 60 대 이상으로 갈수록 앵겔계수가 높아지며, '60 세 이상' 가구의 앵겔계수가 21.2 로 가장 높음
- 소비구조 관련 설문 조사 결과
 - 가구별 생활비 지출규모는 월 240 만 4 천원
 - 여윈돈(100 만원 정도)의 용도는 '자기계발'(21.2%), '해외여행'(20.9%), '취미/레저'(20.3%) 순
 - 주택임대 선호도는 '전세(79.2%), 반전세(6.6%), 보증부 월세(5.1%) 순
 - 전세에 대한 선호는 2-30 대 젊은 층, 미혼, 여성,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음
- 시사점
 - 소비를 주도하는 4-50 대 여성을 핵심 타킷으로 하는 상품·서비스의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
 - 문화, 취미, 레저, 스포츠 등 정신적·신체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
 - 미래의 유망 소비 트렌드는 자기계발과 자격증 관련 교육 서비스업, 해외여행 관련 서비스업, 스포츠 레저 관련 서비스업 등
 - 당분간 전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계속해서 초과할 것에 대비하는 정책 필요

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산층의 변화와 전망

삼성경제연구원 | 연구보고서 | 2013.7.26

<http://www.seri.org/db/dbReptV.html?menu=db01&submenu=&pgno=1&pubkey=db20130726001>

금융위기 이후 단기적 현상이라고 여겨졌던 소비자의 변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

선진국 시장 접근 시 국가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 전략 필요

- 배경
 - 금융위기 이후 세계 소비시장의 핵심 주도세력인 선진국의 중산층 위축
- 선진국 중산층 지출 행태의 특징과 전망
 - 금융위기 이후 내구성 소비재를 중심으로 지출축소 및 내핍성향은 지속될 전망
 - 건강 등 가치지향적 지출은 확대되고 교육비 비중도 증가
 - 선진국이 재정긴축 모드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정책지원에 따른 소비증가 효과는 기대난
 - 통신, TV 등 기술변화 추세가 생활패턴 변화와 결합하여 시장의 확대는 지속될 전망
 -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로 중산층의 소비 변동성은 확대될 전망
- 시사점
 - 금융위기 이후 단기적 현상이라고 여겨졌던 소비자의 변화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
 - 소득위축에 따른 내핍성향 강화에 대응한 제품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선진국 중산층의 니즈를 충족
 - 가격과 성능 외에도 선진국 중산층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제품에 반영
 - 제품 이외에 마케팅, 유통경로 등도 개선
 - 선진국 시장 접근 시 국가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 전략이 필요
 - 경제상황에 따라 중산층 시장규모의 변화 양상이 상이할 전망
 - 국가별 문화적·제도적 차이 등이 중산층의 지출에 영향
 - 중산층의 소비특성과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등에 대한 사전조사도 필요

※ 본 자료는 연구 활동 및 시정 업무의 참고자료로
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임.

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출간자료팀
email: urbandata@si.re.kr
phone: 02-2149-1022